

제 3 부

예수님을 따름

열 아홉: 어머니요 제자이신 마리아

다음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마리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루가 1-2 (유아기 사화)
- * 요한 2:1-12 (가나의 혼인 잔치)
- * 루가 2:51-52 (숨은 생활)
- * 요한 19:25-27 (십자가 발치의 마리아)

마리아는 이나시오 성인으로부터 특별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나시오의 정신과 비전에 영향을 입은 예수회와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도 마리아는 특별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서 마리아는 다양한 양식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존경을 받는 기복이 심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한때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심장으로 보여졌고, 다른 때는 중개자로 보여졌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세상 사람이며 비실재적인 존재로 보여졌다가 그 다음 다시 인간으로 보여졌습니다. 마리아는 약하게 간주되었다가 다시 강하게 간주되었습니다. 확실히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지니고있는 이미지들처럼 어떤 특별한 환경과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리아가 보여졌든 마리아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중심으로서 당신 아드님 다음을 차지하고있었습니다.

학문적인 탐구와 그리스도교의 교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을 때, 성모님에 대한 감상적이며 반 미신적인 데서 참되고 진정한 묘사로 옮겨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타적으로 마리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마리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데로 옮겨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여자로서 그녀의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예수님과 맺은 마리아의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육체적 모습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별로 특성 없이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으며 자신의 가정에 매여 가족에게 헌신한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무려 72 마일을 여행을 할만큼 독립성이 있고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열 두 살 때 배움에 있어 이미 특출할 만큼 아들의 성서적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마을의 목수와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 사실은 남편에게 아이들을 낳아주는 숫자에 따라 축복을 가능해보던 당대의 여인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다소는 열등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수치를 당하고, 죄인으로 몰리고,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마리아의 삶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십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삶은 다른 면, 즉 신앙이 있습니다. 잉태 예고는 마리아의 생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며 마리아의 신앙의 근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잉태 예고가 있고 즉시 마리아는 자신 앞에 가로놓인 것이 어려운 것이고 희생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을 꿈꾸었고, 충실한 이스라엘인으로서 요셉에게 많은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희망을 지니고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를 잃고 부정한 신부를 돌로 쳐죽이는 냉혹한 법 앞에 서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사명에 자신을 활짝 열어 젖었습니다. 마리아는 참된 성소를 추구하며 사명 속에 성소를 이행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엄청나게 활력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에 대한 광신적인 견해는 마리아를 현실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 사명의 원형(原型), 교회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신앙의 교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영성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민족의 삶과 자기 나라의 사회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 속으로 조용히, 끈질기게, 침착하게, 온전히 들어가서 그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여인들에게 공통적인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매일의 실존 속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고요하고 편안한 관상 속으로 피신하지도 않았으며, 외부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접촉하는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사명에 대한 열심한 노력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영감에 응답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활동 속의 관상가였습니다.

성찰:

1) 당신의 신앙생활과 마리아에 대한 당신의 체험이 어떤 영향을 서로 미쳤습니까?

2) 당신은 마리아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리아의 어떤 점에 가장 마음이 끌리십니까?

행동: "마리아" 혹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와 같이 기도로서 자주 반복되는 한 단어나 짧은 구절인 만트라를 하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에 대한 기도 중에 당신은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은총입니까?

마리아가 하느님께 하는 협력은

예고-강생(Annuciation-Incarnation)의 신비에서 한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한다.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데서 보여준

마리아의 효과적인 봉사와

마니피캣에 반영된 가난한 이와 의 연대는

오늘날 세상에서 정의를 위하여 활동하도록

마리아를 우리의 영감으로 만든다.

(정관 9 항, 부록 3 참조)

스물: 제자 베드로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루가 5:1-11 (베드로를 부르심)
- * 마태오 14:22-23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심)
- * 마태오 16:13-20 (반석인 베드로)
- * 마태오 17:1-13 (거룩한 변모)
- * 마태오 18:21-22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다)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서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는 거의 모두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질들과 성격을 지니고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평범하며, 성급하고, 상처를 쉽게 입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관대하고, 단호했으며, 애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강하며 또 약했습니다. 그는 보았지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물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익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동산에서 칼로 대사제의 종을 공격했으며 헤로데의 법정 마당에서는 여중 앞에서 겹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남아있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나자렛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뽑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근본적인 영적 중요성은 그의 인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이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이 수련에서 우리가 청해야 될 은총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베드로입니까? 뽀내며 불충실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회하는 사랑으로 가득찬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게도 합니다. 베드로의

약함과 실패가 그의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아 발견의 매개체였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목격한데서 연유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를 구원해주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체험을 한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 사도처럼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베드로의 약점에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자신의 약점에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성급하면서 상처 입기 쉽고, 눈이 멀면서 예측하기 힘들고, 용감하면서 무서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또한 압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가 우리의 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된 자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를 알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지 않도록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 그 때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련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당신에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베드로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 * 베드로 안의 어떤 면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불편하게 만듭니까?
- * 베드로의 어떤 점이 신앙 면에 있어서 당신에게 희망을 주며 들어 높여 줍니까?
- *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수반합니까?

성찰:

- 1) 당신의 의심과 약점들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 2) 베드로에게 당신의 동반자가 되도록 청하십시오. 그의 생활 안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생활에 들어와 당신과 시간을 보내도록 청하십시오.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 3) 위의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상징: 바다, 호수, 시내, 그릇에 담긴 물 앞에 계십시오. 물에 손을 넣고 더듬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명에 따라 물위를 걷는 베드로를 그려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신앙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도록 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있으며 또 무엇을 하고싶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에서 무엇이 당신을 감동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총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다음 모임 때 신앙 나누기에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다 가까이 따르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를 교회와 함께 자신의 성소로 인식하는
모든 사회적 조건의 남녀와 청장년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들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복지와 창조물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인간과 복음의 가치를 증거 하는데 우리 자신을 투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와 우리의 자유를 표현하는 단순한 생활양식을 통하여
정의를 위해서 일할 긴급한 필요성을 특히 의식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환경에서
사도적 증거와 봉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자신의 인간적 삶을
그리스도인 신앙의 완전성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긴급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카리스마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 안에서 이러한 삶의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
(정관 4 항)

스물 하나: 예수님을 따름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루가 9:23-26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 * 루가 10: 1-20 (일흔 두 제자의 소명)
- * 요한 13-12-17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
- * 요한 15: 9-17 (제자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따름:

마리아와 베드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추종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는 마리아와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와 생각과 양식을 우리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일하시는 태도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개인적 성장과 영적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인류 안에 맥박치는 생명과 우리의 생명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서로 너무나 연결되고 관계 지어져 있어서 우리의 과업, 헌신, 투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 속합니다. 이는 윤리적 의무가 주관심사인 삶에서부터 하느님의 행위가 우리를 통해 가시화되는 영적생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대로 할 따름입니다"(요한 5:19).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역설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사랑을 채워줍니다. 그것은 울적한 체험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와 평화로 채워진 체험입니다. 그것은 초대와 자유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은총의 행위나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체험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어려움과 위협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유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울 때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베드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며,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저항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 충실한 것은 실지로 크나큰 자유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딸을 어른으로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자주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봉사하겠다는 매력은 어떤 장애나 위험보다 더 깊고 더 강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사랑이 행위로 표현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은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자유롭게 그 분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 삶을 향해서 우리가 느끼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제공되며 그 은총은 자유입니다.

결국 CLC는 회원들이 사는 곳에서는 말과 행위로 봉사하는데 있어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두려움과 저항을 극복하게끔 회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식성찰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회원들이 일상 삶의 가장 비천한 실재들 속에 발견되는 사도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구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이것에 따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과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과 공동체:

사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 이상만을 추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비판과 조롱과 의심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면할 많은 작은 죽음으로 번역됩니다. 다른 사람의 후원은 제자가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되는 수용, 인정, 신뢰는 우리에게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은 제자를 혼자 보내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한 1 서 4:20)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던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현대의 제자도 혼자 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혼자 그렇게 하고자 한 사람의 두 예가 예수님의 죽음 직전의 베드로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사고와 생활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성찰:

- 1) 마리아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당신의 원의를 증가시켰습니까?
- 2)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당신에게 갈등을 야기합니까?
- 3) 당신의 삶이 어떤 종류의 예수님 추종으로 특징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누가 당신을 후원해 줍니까?
- 4) 위에 주어진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활동: 진정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도록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받은 은총: 당신이 청한 은총이 당신이 받은 은총입니까? 당신이 받은 은총이 기도 중에 당신을 어디로 이끄니까?

스무 둘: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

주어진 성서구절의 도움으로,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기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아모스 1:2, 2:7 (야훼께서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여 주신다)
- * 미가 6:8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고, 사랑하고, 걸으십시오)
- * 마태오 25:31-46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 * 루가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
- * 요한 13:1-15 (발을 씻기심)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자 애쓰는 진리는 내 안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 안에도, 어려울 때와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부유한 이들 안에나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똑같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종교들은 모든 창조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모든 것 안에서 움직이시는 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특수한 경제적 구조나 정치체계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 내 친구들과 원수들 안에 계십니다. "태양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마태 5:45).

구약의 계약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려하는 이스라엘아, 양떼 풀 뜯던 목장이 탄다. 가르멜 산마루의 풀이 시든다.....너희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가뜩이나 기를 못 퍼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냈기 때문이다 (아모스 1:2, 2:7). 야훼는 약한 자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내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신다 (시편 113:7-8).....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라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렸다 (이사야 61:1).

신약은 같은 사랑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루가 4:18).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 5:3-12). 이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25:31-46).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하지 않는 한 회심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선택이며
하느님의 선택이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비천한
이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목에서,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가난과 두려움과 집착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드러내주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목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수행되어야 할 의무 이상인 까닭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청해야 할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개념은 당혹스럽고
거북하게 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양,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종종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양, 시내 거리에 있는 집 없는 사람과 중독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쉽게 지어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행동을 못하게 마비시킬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기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결핍된 이들의 복지에 관하여 염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압박감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책감이나 강제가
아니라 매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내적 태도와 능력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극히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은총이며 예수님의 사명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은총이며 지속적인 은총입니다. 예수회의
총원장이신 베드로 한스 콜벤바흐 (Peter-Hans Kolvenbach) 신부님께서도
"새 계명은 나의 존재, 나의 인격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만을
주는 한 우리는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더하는 것은 태도, 즉 보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고 보는 것이 행하여지는데 있어서 가난한 이에 대한 선호에 자연스러운 경향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 사이의 격차를 줄이도록 돕는 삶의 양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난 후에야 정치적 결정과 사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찰:

- 1) 가난한 이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맺는 당신의 관계와 또 당신 안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 2)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상징적 의례: 탁자에 다른 종류의 꽃들을 놓아두십시오. 그 모든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까지 그것들을 관상하십시오.

받은 은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살아간다는 관점 속에서 당신의 기도로부터 받은 은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은총을 환영합니까?

스물 셋: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공동체 성찰

다음 성서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상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마태오 5:5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 * 마태오 20:20-28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 * 루가 4:16-21 (예수의 사목의 시작)
- * 마태오 17:1-8 (거룩한 변모)

수련 24 에서 27 은 어머니요 제자이신 마리아,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따름,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숙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체험을 다루는 제 4 부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지난 네 수련 동안 공동체의 생활과 성장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 공동체에 좋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이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하였습니까?
- *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제 3 부에서 어느 수련이 특별히 감명을 주었습니까?
- * 이 체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다른 사람 앞에 있는 나의 현존에서
 - 나의 공동체생활과 기도생활에서
 - 그리스도를 더 알고 따르고자 하는 나의 원의에서
 - 그리스도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공동체에 대한 나의 투신에서
- * 이 그룹에서 어떤 성장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데서 입니까?
- * 공동체가 공통의 사목을 행하도록 불러졌습니까?
- *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활동: 관상기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초, 음악, 향, 십자가 등과 같이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받은 은총: 지난 네 번의 수련동안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것들이 당신 안에서 깊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이 정관은 본문의 문자대로 해석되기보다는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내적 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 사랑의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표현한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랑은
개인의 성소의 유일성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처분에 항상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보도록 도전하며,
진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과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현시대의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게끔 도전한다.
(정관 2 항. 부록 3 참조)